

독립국가연합(CIS)의 곡물 생산 및 수출 잠재력*

유 찬 희

국제곡물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장기적으로 곡물 생산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수와 유희지 이용도에 영향을 받는다.

독립국가연합은 1990년대 이후 이용하지 않은 유희지 규모와 단수 등을 고려할 때 매우 큰 곡물 생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곡물 생산량은 2016년 159~164백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곡물 수출국으로의 위상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최근 수익성이 높은 유지작물의 재배 증가와 기후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낙후된 정부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독립국가연합의 생산 잠재력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지난 몇 년간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지금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2006~2007년 주요 생산국의 공급량 감소, 바이오에너지의 수요 증가, 이자율과 운송비용 상승 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은 식품공급체인에 연쇄 작용을 일으켜 빵, 파스타, 고기, 낙농제품 등 생필품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2008년 밀 식부면적이 크게 증가하여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방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장기적인 생산량 증가는 단수 증가와 사용하지 않은 경지 이용 정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독립국가연합의 곡물 생산 잠재력 역시 경지(기존 유희지의 재이용 포함)와 단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은 1991년 소련의 붕괴 이

* 본 내용은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발간한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chrhew@krei.re.kr, 02-3299-4232)

후 경제이행기를 거치면서 2,300만ha의 경지(arable land)에서 농산물 생산을 중단하였는데, 이 중 약 90%가 곡물 생산에 이용되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유럽 연합 역시 생산 제한 및 경지 보전을 위한 정책 집행으로 경지 면적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중국, 브라질, 남미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경지 면적이 증가하여 전세계 경지면적은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유유지 재이용 여건 유리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는 곡물과 유지작물 재배를 위한 잠재력이 풍부한 편이다. 무엇보다 이들 국가의 정부에서는 유휴경지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집행하거나 경지 보전을 위한 휴경을 장려하지 않고 있다. 물론 소련 시절에는 한계농지까지 경작하였기 때문에, 휴경지를 재이용하더라도 1990년 이전 수준까지 면적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2,300만 ha 중 1,100~1,300만ha의 경지를 생산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기·중기적으로 곡물과 유지작물 재배 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는 휴경지가 풍부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2,300만ha 중 1,100~1,300만ha를 생산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1 경지 이용 추세 비교

단위 : 백만ha, %

구 분	1990~1992	2003~2005	면적 증감	변화율
중국	124	142	18	15
브라질	52	59	7	14
미국	184	175	-9	-5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200	177	-23	-12
기타 국가	843	864	20	2
세계	1,403	1,417	1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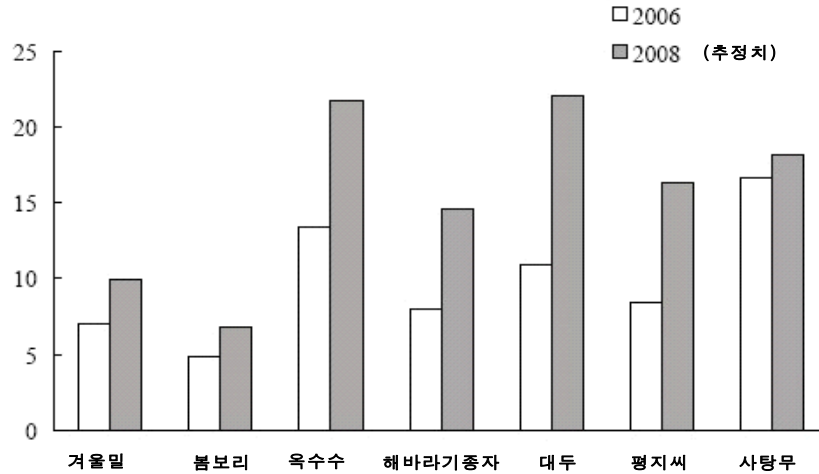
자료: FAOSTAT, ResorceSTAT

곡물이나, 유지작물이나?

전세계적인 곡물·유지작물 재배면적 변화와 비교해 보면, 독립국가 연합에서는 지난 15년간 곡물에서 다른 작물로의 전환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해바라기 씨, 대두, 평지의 수확 면적이 5.6백만ha에서 11.9백만ha까지 증가하였고, 이 증가 면적은 대부분 곡물과 사료작물을 포기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유지작물의 수익이 더 높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유럽 지역으로의 해바라기유와 평지(착유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배면적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림 1 러시아 지역 품목별 가격 변화에 따른 마진 증가(2007/08)

단위: 천 루블/ha



자료: IKAR.

독립국가연합에서 지난 15년간 곡물에서 다른 작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유지작물의 수익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경지에 곡물과 유지작물 중 어느 것을 심을 것인가에 대한 농가의 고민이 계속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곡물 면적 증가는 제약을 받을 것이다. 독립국가연합에서 유지작물 재배면적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기후뿐이다. 운작 체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유럽연합의 바이오연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료용 유지작물을 심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단수 잠재력

1991년 이후 전세계 곡물 단수는 연평균 1.5%씩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서부유럽의 0.6%에서 브라질의 3.7%까지 다양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의 곡물 단수는 오히려 감소하였고, 러시아만이 1990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러시아의 농산물시장연구원(IKAR)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의 단수는 2016년까지 2004~2006년 수준보다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수 증가에 기여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농가경영 기술 개선, 종자 및 투입재 개량 등을 들고 있다. 토양 품질, 기후 조건 그리고 현재의 생산성까지 고려하면 단수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이 세 국가의 단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았던 점은 향후 증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2 국가별 평균 곡물 단수

단위: 톤/ha

구분	1993	2002	2003	2004	2005-2006
아르헨티나	2.85	3.24	3.65	3.66	3.7
브라질	2.35	2.85	3.39	3.13	3.21
인도	2.08	2.19	2.38	2.36	2.47
호주	1.98	1.09	2.09	1.7	2
캐나다	2.65	2.37	2.74	3.11	3.03
미국	4.3	5.55	6.03	6.85	6.39
서부유럽	6.16	6.92	6.01	7.45	6.66
카자흐스탄	0.99	1.15	1.08	0.88	1.11
러시아	1.64	1.82	1.6	1.79	1.8
우크라이나	3.29	2.75	1.85	2.85	2.4
세계	2.74	3.07	3.12	3.37	3.3

자료: FAO Statistics.

전반적인 잠재력은 더욱 높아

2007년 7월 발표된 「OECD-FAO 농업전망」에서는 독립국가연합의 밀과 조곡 생산량이 2016년 159백만 톤으로 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수출 전망도 35백만 톤으로 14% 증가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2008년 5월 발표될 농업전망 수정안에서는 최근의 높은 곡물가격을 반영하여 이 전망치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IKAR의 전망에서는 세 국가의 2016년 곡물 생산량을 OECD-FAO보다 다소 높은 164백만 톤으로 제시하였다.

이 전망치들은 독립국가연합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생산을 제한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제거했을 때 가능한 이론적인 상한은 약 230백만 톤으로 현재 수준 대비 80%까지 증가할 수 있다. 생산량이 이 수준까지 증가하기 위해서는(<표 3>의 ‘최대 잠재력 추정치’) 다음과 같은 가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 카자흐스탄의 단수가 현재 호주 수준에 이룸.
-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단수가 각각 캐나다, 프랑스 수준과 유사
- 현재 휴경 중인 1,300백만ha의 경지를 모두 곡물 생산에 이용
- 현재 곡물과 유지작물 재배면적 비율을 그대로 유지

휴경지와 단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독립 국가연합의 곡물 생산 잠재력은 매우 높다. 연구기관 전망치에 따르면 이들의 곡물 생산량은 2016년 159~164백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곡물 생산 잠재력 추정

단위: 백만ha, 톤/ha, 백만 톤

구분	이행 기간			IKAR 전망 2016/17			최대 잠재력 추정치			
	1992-94 평균	2004-06 평균	변화율 (%)	전망치	현재 수준과 차이	변화율 (%)	최대 잠재력	2004-06 수준과 차이	변화율 (%)	
수확면적	카자흐스탄	21	15	-31	17.5	3	21	19	4	27
	러시아	57	41	-29	46.5	5.8	14	47	6	15
	우크라이나	13	14	13	16	1.9	13	17	3	21
	소계	91	69	-24	80	10.6	15	82	13	18
단수	카자흐스탄	1.06	0.98	-8	1.27	0.3	30	1.56	0.58	59
	러시아	1.62	1.88	16	2.11	0.2	12	2.7	0.82	44
	우크라이나	2.96	2.64	-11	2.75	0.1	4	4.5	1.86	71
	평균	1.67	1.84	10	2.05	0.2	11	2.8		52
생산량	카자흐스탄	23	14	-37	22	8	57	29	15	107
	러시아	93	77	-18	98	21.6	28	126	49	64
	우크라이나	37	37	1	44	6.7	18	75	38	103
	소계	152	128	-16	164	36.3	28	230	102	80

자료: IKAR.

수출 잠재력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은 그동안 곡물 시장에서 주요 수출국 위치를 점해왔고, 이들 국가의 국내 가격은 세계 곡물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은 그동안 곡물 시장에서 주요한 수출국 위치를 점해왔고, 수요가 많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등으로 주로 곡물 수출을 했다. 이 세 국가는 국제 곡물시장에서 유기적인 활동 양상을 보였고, 이들 국가의 국내 곡물가격은 세계 곡물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흑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 가격과 세계 밀 재고량(추정치)은 반비례 관계, 즉 밀 재고량이 감소하면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관계가 있다. 또한 국제 밀 가격과 흑해 지역의 밀 가격은 비슷한 상승·하락 추세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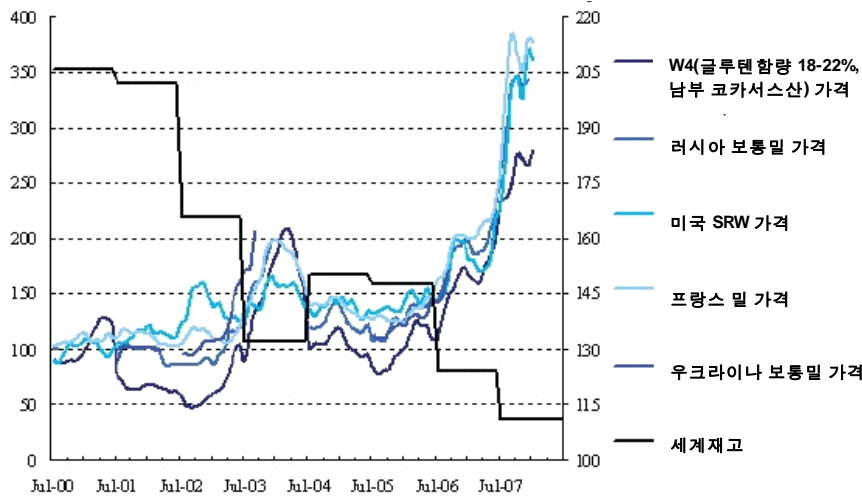
개발도상국, 특히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인구와 소득이 증가하면서 곡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은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하게 하면서 이들 지역으로의 곡물 수출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OECD-FAO 농업전망에서 제시한 수출 증가가 이루어질 경우 독립국가연합이 세계 곡물 교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2006년 12%에서 2016년 14%까지 높아질 것이다. 이 전망에 근거한 다른 주요 수출국의 비중은 미국 34%, 유럽연합 13%, 호주 11%, 캐나다 9% 등이다.

세 국가가 잠재적으로 생산 가능한 최대 수준까지 곡물을 생산한다면 수출 가능한 곡물의 양은 약 1억 톤까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최대 상한은 이론적인 성격이 강하고, 실질적인 수출량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림 2 러시아, 우크라이나 밀 가격과 세계 밀 재고량 추정치

단위: 백만 톤, 달러/톤



주: 세계 곡물재고량은 좌측 축, 곡물 가격은 우측 축 단위 참조.

자료: IKAR, USDA.

국내 수요

생산이 증가할 경우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의 국내 수요는 곡물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 지역의 전체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서 식생활 패턴이 변화할 것이다. 즉, 소비자들이 곡물보다 육류, 어패류, 과채류의 소비를 늘리면서 사료 곡물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료 곡물 수요 증가 중 일부는 향상된 사료 효율에 의한 사료 투입 감소로 상쇄될 수 있다.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세 국가의 국내 곡물 수요량은 현재 예상되는 곡물 생산 증가보다 근소하게 앞서는 수준일 것이다.

바이오 연료용 수요는 국내 곡물과 유지작물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현재 에너지 순수출국이고 바이오연료 생산 목표치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생산이 증가할 경우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의 국내 수요는 곡물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잠재력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의 농업 생산·수출 잠재력을 현실화하려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정책 틀과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각 국 정부 외에도 민간 부문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 지원 정책

독립국가연합의 곡물 생산·수출 잠재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 집행과 민간 부문의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유통 및 저장시설, 철도수송 인프라, 항만 기반시설 등 하드웨어 측면의 개선이 요구된다.

곡물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자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혁신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공 예산 집행을 합리화하고, 핵심적인 제도·규제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민간-공공 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안정화시킴으로써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러시아는 이미 농업을 국가 우선 산업으로 선언하고 관련된 연방정부 예산을 2007년 660억 루블(26억 달러)에서 2012년 1,300억 루블(52억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보다 합리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려면 농업 및 경제발전통상부 지원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농업 부문의 수익성 증진, 정부기관 운영의 합리성 향상, 지자체의 농업 부문 지원 증대 등이 필요하다.

생산 증대를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소비자 물가 안정 대책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특정 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하되 곡물 가격의 상승이 농가에 미치는 긍정적인 기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최근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는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농가의 수익성 향상을 저해하였다. 예를 들어 러시아 정부는 생필품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밀과 보리에 수출관세를 부과하였고, 국내 유통 과정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마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강화

유통 및 저장시설

현재 저장시설 환경과 이를 기반으로 추정된 곡물 저장능력(129백만 톤)은 현재의 생산량 128백만 톤을 간신히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다. 기존 시설을 현대화 또는 교체하고 추가적으로 저장시설을 건설하여야 다른 대규모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의 곡물 유통 및 저장 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은 기술적·경제적 효율성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분리 저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적재·하차 속도가 느려서 전반적인 낭비가 심하다. 1970년대에 건설한 시설들은 급속하게 노후화되고 있어 교체 또는 현대화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등에서는 항만 시설에 대한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륙의 곡물 엘리베이터(저장시설) 개선은 아직도 요원하다.

IKAR에서는 러시아의 곡물을 1차적으로 유통시키는 시스템(grain first handling system) 중 핵심적인 시설들을 현대화하기 위해 약 25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까지 포함할 경우, 총 투자액은 45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는 신규설비 도입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유통 및 저장 시설에 투자함으로써 수확 후 감모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 국가 모두 곡물 생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농가 수익성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현 시점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물적 기반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곡물이 수확 직후에 판매되고 있다. 이에 따른 홍수출하와 계절에 따라 큰 폭으로 달라지는 가격 진폭 때문에 농가의 수입도 불안정하다. 정부는 시장 규제를 통해서 대응해 왔으나, 정부 매입과 곡물 수출금지 조치는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민간 시장으로 하여금 저장시설 투자를 확충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철도 수송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모두 지역 간 거리가 멀어 철도 수송 개선이야말로 곡물 부문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세 나라 모두 정부가 철도 사업을 독점하고 있고 적절한 지속 및 투자 정책이 결여되어 있어 곡물 수송 기능이 점차 약화되어 왔다.

세 국가 중 우크라이나가 철도에 대한 의존도 수준이 가장 낮다. 남부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곡물을 트럭으로 수출용 사일로까지 수송한다. 그러나 내수용 곡물은 여전히 철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수출용 곡물이 러시아를 경유하여 흑해·발틱해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에 수출용 기간시설을 갖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이 점을 제외하더라도 카자흐스탄의 철도 시설 여건은 현대화가 시급하다.

세 나라의 곡물 운송과 수출에 병목현상(bottleneck)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철도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 외에도 운송 및 투자 정책 역시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소유권, 운송 시스템의 유지 및 운영 개선, 관세 구조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서는 일부 민간 곡물기업이 운송 투자의 일환으로 곡물을 구입하고 있다. 그러나 뒤이은 정부의 곡물 수출금지 조치 때문에 투자가 감소한 사례가 있다.

유통 및 저장시설의 투자는 수확 후 감모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곡물 생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철도수송은 곡물 부문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양만 기반시설

최근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의 투자자들은 항만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항만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좋으며 3단계에 걸쳐 최첨단 deep-water off-loading 시설을 갖추었다. 이 시설의 연간 용량은 약 2,500만 톤에 이른다. 러시아는 두 개의 deep-water 시설을 갖추고 있다(Novorossiysk, Tuapse).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여전히 비용이 많이 드는 하역 방식으로 사용하며, Tuapse 지방에는 곡물 저장시설마저 없다.

정책 집행 대상 선정

지역인적자원 개발

지난 15년 동안 세 국가에서는 특화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농산업과 농업경영 기술 수준을 떨어뜨려 농업생산성을 낮추는 결과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이 결과 농업에 대한 젊은 농업인들의 관심이 낮아졌고, 농촌 지역에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공공 농업연구와 전파 시스템 역시 붕괴되었다. 지적·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투자를 위한 신용시스템 강화

곡물 생산과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려면 농기업과 농가들이 용자를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금융기관을 강화시키고, 농업인들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세 국가의 농기계는 평균적으로 매우 노후화되어 있다. 기존의 장비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기계 재고를 늘려야 생산을 늘릴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농가 단위에서 상당 수준 투자를 하여야 한다. 농기계는 합리적인 가격에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용자 조건이 까다로워 농기계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지 못하다.

곡물재해보험을 도입하면 은행들이 농가에 보다 쉽게 대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악천후로 인한 수확 감소에 대비하여 곡물보험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일부는 세계은행에서 지원된다.

농지시장 개선

러시아 정부는 2006년 들어서야 농지의 판매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토지 수요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토지 소유를 원하는 임차농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러시아의 농지 가치는 가장 비옥한 농지도 1,500달러/ha 수준으로 다른 주요 생산국의 농지 가치(예를 들어 미국은 10,000달러/ha)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농기업 설립에 유리하다. 러시아 정부는 신용 부문에 대한 접근을 개선함과 동시에 농업 모기지 시장(agricultural mortgage markets) 개발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농지 거래가 허가되지 않아 정식 농지 획득이 어렵다. 그러나 현재 음성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농기업들은 현재의 장기 임대 계약이 완전한 소유권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투자 유치를 위

하드웨어의 개선 외에도 낙후된 지적·인적 자원의 개발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선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농가를 대상으로 한 용자 조건 완화 등의 신용 시스템과 농지 시장 거래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 농지 지분 정책과 농지 소유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명시된 정책은 없는 실정이다.

대규모 농기업 육성

대규모 농기업(agroholdings)의 등장은 최근 세 국가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들 대규모 농기업은 통상적으로 여러 개의 농장을 운영하는데, 하나하나가 수만~수십만ha 규모여서 상당한 시장교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수직/수평 통합된 경영체들은 전문적인 팀이 운영을 하며, 비농업인이 소유한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러한 경영체가 개별 농가보다 운영 효율성이 높기는 하지만,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가 적어 그 효과가 잠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들 경영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IKAR은 러시아에만 350개의 대규모 농기업이 800만ha의 경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최소 12개의 기업(Cherkizovo, Nastyusha, Prodimex, Razgulay, Rusagro, SAHO, YugRasi 등)이 각각 15만ha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대규모 농기업은 2016년까지 곡물 생산량의 40~50%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몇몇 수직, 통합된 곡물 기업이 투입재, 생산, 수출, 도정 등의 80% 이상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기업농들이 육계 생산, 수출, 곡물 및 유지작물 가공 등에 특화되어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농산물 생산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를 없애고 부가가치세에 특혜를 주어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원자료

FAO, Grain Production and Export Potential in CIS Countries, 2008.3.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7-2016, 2007.

규모화된 농기업 (agroholdings)의 등장은 최근 두드러진 현상이다. 러시아에서만 350개 경영체가 800만ha의 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